

작품 내용

제 목	일반_산문_무덤에서 찾은 이름
내 용	아들은 묘비에 음각된 아버지 이름을 한 자 한 자 속으로 읽어 보았다. 평생 아버지 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버지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글만 썼다. 할아버지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라고 아버지를 볼 때마다 혀를 찼다. 시청에 취직한 후, 아버지는 홍보 글을 시민들의 읽을거리로 만들었다. 시장은 홍보 글 덕분에 자신의 인기가 올라갔으며 연설문도 아버지에게 맡겼다. 아버지는 시장의 자서전을 맡게 되면서 전업 작가가 되었다. 그 후로 유명인의 책을 대필하는 작가로 활동하였고 생활 형편이 좀 나아졌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유명 정치인의 자서전을 쓸 때였다. “선생님, 대필료 받으시는 조건으로 의뢰인과 내용 상의해서 써 주시면 되고요.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양도되고 저자도 의뢰인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아버지는 계약서를 보고 자신을 작가가 아닌 글 쓰는 기계 정도로 취급하는 출판사에 모욕감을 느꼈다. “좋아요. 편집장님. 저작권은 넘기죠. 그러나 적어도 공동 저자로 표시는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편집장은 내부 회의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었다. 아버지는 일 년의 생활고를 견디다가 결국 출판사 관행에 따랐다. 그 후로 계약은 관성이었다. 어느 날 아들은 동네 서점에서 본 책이 아버지가 몇 달 전에 쓰던 책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 책장에서 같은 책을 꺼내서 학교로 가지고 갔다. “이거 올 아빠가 쓴 거다.” 그러나 같은 반 애들이 그 책의 저자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거짓말쟁이라고 아들을 놀렸다. 그날 저녁 아들은 아버지에게 따졌다. “아빠가 쓴 책에 왜 아빠 이름이 없어? 학교 가서 자랑했는데 애들이 나보고 거짓말쟁이라잖아.” 그날 이후로 아들은 친구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집에서도 책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속으로 자책했다.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던 어느 날 아버지는 새로운 원고를 쓰고 있었다. 엄지와 집게손가락이 저렸지만 가끔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손가락을 풀고서 계속 글을 썼다. 책상 위에는 원고지가 쌓여 갔다. 한동안 스르륵 만년필 미끄러지는 소리만 들렸다. 한참 후 아버지는 두툼한 원고지 뭉치를 바라보다가 뭔가를 결심한 듯 파란색 사인펜을 집어 들었다. 힘을 주어 천천히 한 자 한 자 이름을 써 나갔다.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은 처음이었다. 외부의 의뢰 없이 처음으로 자신이 쓴 이야기였다. 아들은 아버지가 원고지 뭉치를 들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아버지에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다 컸으니 가장 역할을 분담할 수 있어요. 이제 아버지

가 쓰고 싶은 글을 쓰세요.”

아버지는 어느새 30대가 된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늦게 얻은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이미 마음도 몸도 늙었지만, 자신을 응원해 주는 아들이 대견했다.

“고맙구나...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 글을 쓰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고,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냥 쓰는 게 좋았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내가 쓴 글에서 내 이름을 너무 쉽게 포기해서 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그때 너무 부끄러웠다. ”

“후... 이제 나도 내 이름을 찾고 싶구나. 너에게 당당히 내 책이라고 보여주고 싶구나.”

이날 이후로 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모았고 법률 자문도 받았다. 그리고 출판사 편집장을 만났다.

“그러니까, 아드님께서는 아버님을 공동 저자로 표시해 달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편집장님. 아버지가 쓰신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서 개정판에 의뢰인, 아버지 공저로 표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작재산권은 의뢰인에게 양도 되었고요. 아버님은 성명을 표시하지 않기로 동의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어요. 위약금 조항도 있고요.”

“편집장님, 저작재산권을 넘긴 것과 누가 실제로 글을 썼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서가 실제 창작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편집장님과 법률적 다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끊었다.

“편집장님, 저는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평생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드님... 일이 간단치 않아요. 의뢰인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고요.”

아들은 힘이 빠졌다. 아버지 이름을 표시해 줄 의뢰인이 있을 리가 없다. 법정 다툼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었다. 아들은 편집장 손을 덥석 잡으며 의뢰인에게 잘 말씀드려 달라고 부탁했다. 편집장은 힘써보겠다고 했지만, 의뢰인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로 했다. 아버지가 썼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없는 책들을 보여 주며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는 쇼츠를 만들어 SNS에 올렸다. 쇼츠는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댓글은 다양하게 달렸다.

“저거 내가 읽어 본 책인데, 글쓴이가 따로 있었네요.”, “계약했으면 계약서대로 해야지, 왜 이제 와서 탄소리야!” 댓글 중에는 대필 작가에게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글도 많았다. 아버지도 쇼츠를 보더니 “그래, 해 보자.” 라고 온 힘을 다해서 말했다.

쇼츠가 어느 정도 퍼지자, 출판사가 반응했다.

“아드님, 쇼츠를 당장 내리세요. 지금 의뢰인과 얘기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의뢰인도 아버님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 후 편집장과 다시 만났다.

“아드님 저희가 방법을 찾아봤지만 이미 유통된 책의 표기를 소급해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개정판에 아버님을 공저자로 표시하는 데 끝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마침, 저희가 아버님이 투고하신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파란색으로 아버님 이름이 적혀 있는 원고입니다. 그 원고를 저희가 기획 출간해 드리는 것은 어떤가요? 아버님과 상의해 보시죠. “

편집장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새 계약서를 보여 주었다. ‘저작권재산권 양도’ 아래에 ‘실제 집필자와 저자 표시’라는 항목이 따로 생겼다. “아버님 일 이후로 바꿨습니다. 관행이란 말로 글쓴이의 이름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들의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아버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책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안장하는 날, 아들은 아버지 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보였다. 한 남자가 아들에게 다가와 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일으켜 세웠다. 아들은 손으로 눈물을 훔친 채 돌아봤다. 편집장이었다. 말없이 포장된 네모난 물건을 건네 주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다. 표지에 아버지 이름이 보였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버님 생전에 출간하려고 했는데…”

아들은 책을 묘비 앞에 두 손으로 살며시 놓았다.

“아버지. 이제야 책에서 아버지 이름을 찾았어요.”

초판은 의뢰인이 전부 사들였다.

전국 도서관에 보내졌다.